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표현적 텍스트에 있어서도 사물에 관련되는 주제가 텍스트주제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2에서 역시 두번째 주제로서 "As to Heidelberg"가 상정되었다.

2.2 텍스트2에서 어휘는 중립적이 아니며 다수의 형용사(19), 강조("pretty warm - very warm, in fact"(1/2열)), 기술적 동사deskritives Verb("shave"(16열), "chop off"(17열), "nestle"(19열), "perch"(26열), "cushioned"(28열), "draped"(28열)), 은유("shape of a shephard's crook"(6/7열), "cloven through"(12열)), 그리고 두운법 Alliterration("lofty, leafy"(34열))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2.3 구문은 긴 문장(7-8줄)과 짧은 문장(2줄)의 교체와 삽입("along whose bottom……"(10열)), 재개("a precipice…"(26열)) 등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수동태구문은 나타나지 않는다.

2.4 텍스트2에서는 10개의 문장에 42개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은 평균적으로 4개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정보중에서 Heibelberg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3개 뿐이다.

2.5 텍스트2는 정보구성의 전개방법에서도 텍스트1과 다르다. 텍스트2의 정보구성은 불변적이 아니고 실제로 매 문장마다 바뀐다. 즉 "Heidelberg"(1열)에서 "the weather"(1열)로, "we"(3열)로, 다시 "Heidelberg"(5열)로 등 정보구성이 자주 바뀐다. 텍스트2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다수의 상이한 주제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2.6 텍스트2는 저자-독자-관계의 양태에 있어서 저자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컨대 저자는 3개의 Heidelberg에 관한 주제화를 제외하고도 Heidelberg에 관해서 사실과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 자신의 내적 관점에서 자주 언급한다. 저자는 그 자신을 "we-형식"(3열)으로 주제화하거나 "누가one(7열)"로 일반화하고 있다.

텍스트2는 매우 생동적으로 작용한다. 그 이유는 Twain이 자주 이야기의 대상을 의인화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 실례로써 Heidelberg는 "nestling between them[the headlands]"(19열), "The Rhine valley"(20열), "spreads away"(20열), "the Neckar goes wandering in shining curves"(21/22열), "the Schloss-Hotel[...]is perched on a precipice"(25/26열) 등을 들 수 있다.

텍스트2를 총괄적으로 개관한다면 텍스트2는 텍스트1과 어휘, 구문, 정보량, 정보구성과 저자-독자-관계의 5개의 양태에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뚜렷이 구별된다.

[텍스트3]
Heidelberg
Consequences of the Student Prince
ON SCENE
Lay of the Land: One reason for Heidelberg's

touristic success is its geographic simplicity. You can't get lost. The Neckar river serves as the northern boundary of the historic core of town, with the castle - Das Schloss - looming over the town's southern fringe. The Hauptbahnhof is at the west end, in a modern quarter beyond the ancient sector. It fronts a street called Kurfürstenanlage, which leads straight into the center. Running roughly parallel is the city's main thoroughfare, Hauptstrasse. The bulk of the monuments - except for the on-high Schloss and the across-the-river promenade called Philosophenhöhe (go over to get the view) - lie on either side of Hauptstrasse between two squares, Bismarckplatz and Karlsplatz.

Three bridges cross the Neckar. Two are important. Theodore Heuss Brücke, the westernmost, leads to the new campus of the university. And the central Alte Brücke - the fifth to be built on the site, and dating to the late eighteenth century - leads to Philosophenhöhe, and is in and of itself a major Heidelberg landmark.

The newer part of town - west of Bismarckplatz - is a good walk from the core. But getting across the center on foot is a pleasure. You can even walk up to the *Schloss,* although the cable-car ride is at least as enjoyable - and easier. And up top, there's a carpark, for motorists.

(여행안내책자)(주제는 밑줄을 쳐서 표시함)

텍스트3에서 나타나는 양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정할 수 있다:

3.1 주제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독자에게 낭만적인 "학생왕자Student Prince"를 연상시키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주제는 실용텍스트의 기능과 더불어 낭만적 암시를 통해서 Heidelberg에 관한 독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또한 호소와 관련되는 기능을 지닌다.

3.2 어휘면에서 보면 텍스트3에서는 단순한 일상용어 즉 구어체가 많이 사용되었

다. 그 예로써 "can't"(3열), "there's"(31열), 그리고 "is a good walk from"(27열), "getting across"(28열) 등의 어휘선택을 들 수 있다.

3.3 구문은 짧은 문장, 생략 등 매우 간단한 형식이며 종속문장이나 수동태구성은 사용되지 않았다.

3.4 텍스트3에는 15개의 문장에 32개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문장에 내포한 정보량은 평균적으로 2개이다. 텍스트3은 직감적으로 호소를 강조하는 텍스트임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열거한 3개의 텍스트중 가장 적은 정보량을 지니고 있다.

3.5 정보구성에서 주제적 전개방식은 지속적이 아니고 텍스트2에서와 같이 실제로 문장마다 바뀐다. 예를 들면 "Heidelberg의 성공적 관광"(1/2열)에서 "you"(3열)로, "The Neckar river"(3열)로 그리고 "The Hauptbahnhof"(6/7열)로 주제가 자주 바뀐다.

3.6 저자-독자-관계의 양태에서는 "you"(3/29열)로 직접 호칭되는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텍스트3를 총체적으로 개관해 본다면 주제, 어휘, 구문, 정보량, 정보구성과 저자-독자-관계의 6개의 모든 양태의 비교에서 텍스트3는 텍스트1과는 체계적으로 다르지만 텍스트2와의 비교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직감적으로 Reiss의 세 유형에 해당되는 세 텍스트의 상이한 양태를 서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은 자질표를 얻을 수 있다:

텍스트 / 텍스트자질(양태)	텍스트1	텍스트2	텍스트3
1. 주제 1.1 사실과 관련되는(실용적) 1.2 표현적 1.3 호소를 강조하는	1.1	1.1	1.3
2. 어휘 2.1 실용적-전문적 2.2 미적-다양성있는 2.3 단순한-일상어적	2.1	2.2	2.3
3 통사 3.1 복합적 3.2 변이적 3.3 단순한	3.1	3.2	3.3
4 정보량 4.1 >다섯 문장마다 4.2 변이적 4.3 약 두세 문장마다	4.1	4.2	4.3

텍스트 / 텍스트자질(양태)	텍스트1	텍스트2	텍스트3
5 정보구성 5.1 일정한 전개방법/주제 5.2 잦은 주제변경	5.1	5.2	5.2
6 저자-독자-관계 6.1 사실과 관련되는(실용적) 6.2 저자와 관련되는 6.3 저자와 독자간의 상호작용	6.1	6.2	6.3

위의 자질표를 고찰해 보면 특정의 양태는 상이한 텍스트유형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현적 텍스트의 주제는 사실과 관련되며 예상과 같이 미학적-표현적이 아니며 이 외에는 텍스트1과 텍스트2는 동일한 텍스트의 특성 즉 연속적 주제교체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문시되는 것은 경험적으로 많은 텍스트의 체계적 고찰을 통해서 특성의 텍스트유형이나 텍스트종류에 전형적인 텍스트의 특성 즉 양태를 추출해 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번역학에 텍스트언어학을 원용함으로써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텍스트구성, 텍스트응집력, 텍스트분류 등의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의 중요한 특성에 관한 연구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러한 텍스트의 특성에 의거해서 텍스트번역의 실제적 문제가 구체화되고 또한 텍스트종류의 특성이 대조적 비교를 통해서 기술될 수 있다. Reiss가 제안한 세 텍스트유형은 텍스트와 언어외적 조건에 관심을 집중케 함으로써 결국 번역학을 언어학적으로 통사적 구조와 연계시켰다. Koller의 두 텍스트장르는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관점에 의존하며 또 한편 번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텍스트의 내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물론 텍스트언어학을 번역학에 적용함으로써 언어쌍과 관련되는 번역학의 방법론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번역방법을 창출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Ⅳ. 번역비평

언어가 한 민족의 문화와 특성의 직접적 표현이라면 언어상대성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언어는 다른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될 수는 없다. 그러나 번역은 인류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고 많은 번역학자들은 최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번역의 이론과 방법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금세기에 이르러 기호체계로서 언어에 관한 논리적 고찰을 통해서 현대언어학이 정립되었다.

정밀과학으로서 현대언어학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을 필요로 하며 이에 상응하여 번역학 역시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원용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번역에 관한 어떤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이론과 방법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번역비평에 관한 이론과 방법의 설정에 관한 논의는 이제 겨우 관심을 끌게 되었다. 모든 번역은 필연적으로 개인적 해석에 기초한다. R. Politzer가 언급했듯이 번역가는 번역과정에서 원문텍스트를 토대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원문텍스트가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위한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해석학적 과정에서 번역자 자신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

번역비평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는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20세기 중반까지 문학작품 번역을 지배했던 원어중심의 번역방법은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를 비판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A. Schopenhauer가 부적당하게 번역된 문학작품을 대용커피Zichorienkaffe라고 칭했듯이 이유를 불문하고 대체로 번역된 문학작품은 질적으로 수준 미만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번역비평이 번역학의 하위분야로 취급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었다. Bausch(1968, 31)가 일반적 번역비평에 관한 원칙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Huyssen(1969, 14)이 번역비평의 난맥상에 관해서 언급한 사실만 보더라도 그 당시 번역비평에 관한 질적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언어쌍과 관련되는 기술적 그리고 실용적 문제에 관한 논쟁이 Reiss, Klegraf, Popovič, Wilss, K. Popp, J. House, Koller 등의 번역학자에 의해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50]

번역비평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원어텍스트와 번역가이다. 최근 번역학 그 자체가 텍스트언어학의 한 분야로 취급되는 경향이 농후한데 여기에서 텍스트 구성요소간 상호의존성, 텍스트기능 및 텍스트수용에 관한 문제 즉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유형에 관한 문제가 중시된다. 따라서 상대론적 원칙의 관점에서 번역학의 특수한 이론을 정립하고 텍스트유형에 관한 번역비평의 과정을 설정해야 한다(Ivir 1981). 또 한편 텍스트언어학과는 대조적으로 번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부진한데 그 원인은 발화 및 청취(특히 간언어적 경우)의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데 있다. 심리언어학자나 신경학자들도 어떻게 언어자료가 뇌에 저장되고 언어과정이 진행되며 또한 언어정보를 재생하는 데 어떤 정신적 구조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번역은 어휘론적, 통사적 그리고 텍스트-화용론적 관점에서 원어의 기호결합을 기능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역어의 기호결합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따라서 일상적 텍스트보다는 번역자의 창조적, 해석학적, 문체론적 그리고 화용론적 능력이 요구되는 텍스트의 번역에서 번역자의 주관적 판단이 한층

50) 번역비평에 관한 논쟁은 주로 어휘 및 통사론적 오역에 관한 것이며 방법론상의 관점에서 볼 때 언어적 또는 언어외적 방법을 혼합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Wilss 1982, 217).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51]

동일한 텍스트에 관해서 모든 번역가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까닭은 1) 모든 번역가는 자신이 선호하는 특유의 언어수행모델[52]을 소지하고 있으며, 2) 번역가의 번역능력이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내용계층의 문맥상의 분포는 번역가마다 서로 다르고, 3) 단순한 의사소통의 상황을 제외하고 자연어는 동일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으로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가에 대해서 객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번역비평 역시 체계적 방법이 아니고 대체로 직감적으로 이루어졌다. 번역비평가는 텍스트의 기능적, 구성적 및 수용적 관점에서 1)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를 비교하고, 2) 역어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심리언어학적 과정을 재구성하여, 3) 간텍스트적 충족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번역가는 간텍스트적 능력을 바탕으로 발화의 등가와 비등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자신의 번역능력을 토대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ibid. 219f).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적이고 객관적 번역비평의 방법과 기준을 설정하기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다:

1) 번역가 특유의 언어수행 모델, 해석학적 과정의 주관적 조건(세계관)의 차이점
2) 번역가의 심리적, 생리학적 구조의 차이점
3) 번역가의 예술적인 창조적 능력의 차이

다음에 번역비평의 이론과 방법설정에 크게 공헌한 Popovič, Wilss, Reiss, Koller 등의 이론을 분석 및 비판하고자 한다(Koller 1979, 196-216 참조). Popovič(1973)는 그의 논문 "Zum Status der Übersetzungskritik번역비평의 위상에 관해서"에서 문학작품 번역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번역비평의 필수적 요인으로 가정적postulativ, 분석적analytisch, 기동적operativ 기능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요인은 원어문학과 역문텍스트 그 자체는 물론 번역의 독자와 연관된다. 그는 논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다음 세 번역비평 영역을 제시했다:

1) 번역비평은 원어문학과 역어문학의 연관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텍스트를 연구한다. 여기에서 원어문학의 관점에서 번역된 작품의 대표성이 중시된다. 비평가는

---

51) 번역가의 번역능력translation competance의 개념은 단순히 원어민의 통사적-의미론적 규칙체계의 습득을 의미하는 Chomsky의 언어능력의 개념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예컨대 번역능력은 언어능력과 언어외적 능력으로 구분되며 언어능력은 원어수용적 및 역어재생적 능력으로 나뉜다(ibid. 218f).

52) Ungeheuer(1971, 191)는 이러한 내용계층을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론상의 기초적 범주라고 칭했다.

원어문학과 역어문학과 관련해서 작품의 규범일치와 독창성을 평가한다.

2) 번역비평은 번역으로서 번역을 연구한다. 여기에서는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의 문헌학적(언어적-문체론적) 분석이 시도된다. 비평가는 언어적-문체론적 방법의 충족성 및 번역가 자신의 결정에 관한 정당성과 관련하여 번역을 평가한다. 즉 번역자의 문헌학적 그리고 객관적 오류에 관해서 비판한다.

3) 번역비평은 번역의 수용조건을 평가한다.

Popovič의 번역비평이론에서는 일차적으로 언어적-문체론적 관점에서 원어와 역어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다음 언어적-문체론적 방법과 관련하여 원어와 역어텍스트를 비교하는 과정이 중시되었다. 여기서 언어적-문체론적 오류에 관한 분석은 번역비평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의 이론이 비교적, 체계적 번역비평의 효시가 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Wilss는 그의 논문 "Probleme und Perspektiven der Übersetzungskritik번역비평의 문제와 전망"(1974; 내용을 수정하여 Wilss 1977, 216-227)에서 번역비평에 관해서 그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번역비평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를 중시했는데 그에 의하면 번역비평은 내용상의 등가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객관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적이고 문체를 중시하는 텍스트의 경우는 주관적-해석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므로 객관적 번역비평은 불가능하다. 그는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 간의 내용상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준보다는 역어를 기준으로 한 언어적-문체론적 표층구조의 현상과 관련되는 규범이탈모델Norm-Abweichungsmodel을 객관적 번역비평의 토대로 간주했다. 또 한편 그는 번역비평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네 영역으로 구분했다(Wilss 1977, 222):

1) 랑그영역에서 규범과 이탈의 관계

2) 언어관습의 규범영역에서 규범과 이탈의 관계

3) 상황에 따른 서법(Modalität)의 실현영역에서 규범과 이탈의 관계

4) 개인적 빠롤영역 즉 번역작업이 다양한 변수간의 선택과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서 규범과 이탈의 관계

이외에도 그는 번역비평의 한 분야로서 비교적 문제성이 없는 그름/옳음의 개념쌍의 영역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번역가와 번역비평의 능력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번역비평은 논리적으로 번역비평에 선행하는 번역학의 하위분야 차원에서 행해지는 오류분석이 된다.

가장 복잡한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번역비평의 문제는 역어텍스트의 재현이 창조적 행위와 문체론적 형식을 요구하는 개인적 언어사용 영역에서 야기된다. 그러나 번역비평은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에 나타나는 수많은 오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는 분야는 아니다. 번역비평의 객관성을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 문제는 분명히 커뮤니케이션적 언어사용을 규범화하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언어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원어와 역어에 상당량의 언어적 행위패턴과 구속적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번역의 커뮤니케이션적 효과는 현저한 언어수행적 재고목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러한 재고목록은 언어상호간 상관관계가 있다.

위해서 열거한 바와 같이 번역비평이 과거의 방법론적 불안정성을 탈피하고 번역학의 하위분야로서 발전하려면 체계적 기술과 역어텍스트의 해석과 평가를 확증할 수 있는 객관적 번역비평범주의 분류법[53]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텍스트의 객관적 해석과 분석방법은 물론 커뮤니케이션적 상호작용에 관한 기동적 이론도 정립되지 않았다.

번역비평에서 한가지 주지해야 할 사실은 의사소통행위의 내면화된 즉 주관화된 패턴이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긍정적 양상으로서 커뮤니케이션적으로 표준화되거나 규범화된 표현방법의 영역에서 번역비평은 의사소통능력을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 양상은 간언어적 언어수행목록을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재현되는 언어수행과 언어행위와 연관되는 패턴을 취급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문체론적으로 야기된 번역과정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는 환원론자적 평가기준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번역비평의 모순성은 비평의 객관성이 약간의 수정만이 허용되는 의사소통적 관례의 범위내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또 한편 번역비평의 한계는 물론 랑그차원의 문맥languecontext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영역 또는 화용론적 문맥의 영역에 국한된다(ibid. 223).

그는 시험적으로 다음과 같은 번역비평을 토대로 한 번역비교의 결과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평가표를 작성했다(ibid. 226):

	틀린	부적당한	미결정적 경우	정확한	적절한
통 사 론					
의 미 론					
화 용 론					

그의 번역비평이론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번역비평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요약컨대 그의 이론은 경험적 연구의 특성상 기술적이고 평가적 성향을 띤 실용적 방법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53) 이러한 분류법의 설정을 위한 방법은 그름/옳음에 대한 평가기준의 확고한 개념을 목표로 하는 텍스트 내적 접근방법이다.

Koller(1979, 198f)는 Wilss가 제시한 객관성을 필요로 하는 번역비평이 사용규범화된 언어영역에 국한된다면 그의 이론은 실제로 번역비평이 요구되는 텍스트(원어와 역어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언어적 표현)를 비평에서 제외시킨다고 주장함으로써 Wilss의 이론에 반론을 제기했다. Koller에 의하면 이러한 번역비평은 구문과 어휘영역에서 엄격히 규범화된 텍스트에만 유효한데 이러한 텍스트는 이미 규범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하게 번역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번역비평적 결정은 결국 그름/옳음의 개념이나 규범이탈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번역비평은 오류비평이다. 따라서 사용규범과 텍스트장르에 전형적 언어규범에 관한 대비적 연구가 번역학의 중심과제이고 또한 이렇게 설정된 규범은 번역비평의 선매권으로서 관련되는 텍스트비평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제한된 번역비평의 유효범위는 상대적으로 좁다. 예컨대 이러한 비평은 원어와 역어텍스트의 내용상의 등가관계를 평가하기 위해서조차도 충분하고 확고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Wilss(1977, 292)는 객관성을 근간으로 하는 번역비평의 난해성을 파악하고 번역비평의 본질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시사했다. 즉 번역비평의 해결불가능성은 비평에 대한 객관성의 충족은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주관과 연계되는 표현관습의 실현으로서 번역의 제한된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되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번역비평의 불가능성은 비평의 대상이 비평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확장된 랑그차원에 국한해야 한다는 데 있다.

Reiss의 번역비평이론의 출발점은 텍스트유형이다.[54] 그녀는 자신의 저서 *Mö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번역비평의 가능성과 한계(1971, 12f)에서 객관적이고 실제에 적합한 번역비평의 범주를 설정하려고 시도했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녀가 번역비평의 객관성에 관한 문제에서 과학적 번역비평 이론정립보다는 실제적 사항 예컨대 훌륭한 또는 졸렬한 번역인지 번역평가에 관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또 한편 실제적 적합성Sachgerechtigkeit의 개념에서 중시된 사항은 문학적 특성, 저자의 풍부한 상상력, 깊고 폭넓은 사고력, 과학적 정확성 등의 유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번역을 있는 그대로 비평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번역에서 원문의 수정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려는 시도와는 위배된다(ibid. 67f). 여기에서 내용을 중시하는 텍스트의 번역자가 사실에 대한 명백한 오류Sachfehler나 문체론상의 오류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 한편 번역비평가에게도 번역가와 마찬가지로 원문에 관한 내용상의 그리고 또는 문체론적 특성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권한이 주어진다. 원문과 비교하지 않은 번역비평은 번역가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교번역비평은 우선적으로 원문의 질적 평가를 전제로 한다.

---

54) 전통적 번역방법은 직역/의역의 양자택일이였으며 번역유형에 관한 핵심적 문제는 등한시하였다.

실제적 적합성의 개념은 순수하게 언어를 기준으로 한 번역비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은 번역의 결과를 옳거나 그르다고 또는 훌륭하거나 졸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확고한 언어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언어적 규범에 대한 이해는 특히 역어의존적 비평의 경우 명확해진다.[55] 그 이유는 역어중심 번역비평의 경우 분명히 원문과 비교하지 않고 역어의 유창하지 못하거나 그릇된 사용법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ibid. 19). 어떤 표현이 유창하다는 개념은 물론 유창하지 못한 언어사용법을 확정할 수 있는 문체론적 규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오류의 개념은 문법적 규범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실은 랑그차원의 규범인 문법적 규범의 개념 역시 결코 문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체론적 규범을 토대로 번역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번역의 질적 평가로서 번역비평의 목적이나 번역비평의 범주를 그름/유창하지 못함 등으로 제한한 것을 고려해 볼 때 Reiss의 번역비평은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류비평Fehlerkritik이라고 할 수 있다. Reiss(1982, 115, 초판은 1971년에 발행되었음)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사리에 맞는 번역비평의 가능성과 한계를 개괄적으로 종합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번역비평이 텍스트에 적합한(=텍스트유형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을 요구하는 좁은 의미의 번역에서 당해 텍스트유형에 따라서 텍스트에 알맞게 이루어졌다면, 즉 비평의 기준이 텍스트유형 범주와 텍스트에 내재된 언어내적 지시와 언어외적 제한에서 추론되었다면 그 번역비평은 실제에 적합하다.

2) 목적에 적합한(=특별한 기능 및 특별한 독자층을 겨냥한) 번역방법을 요구하는 번역비평이 넓은 의미에서 번역에서 특별한 기능 또는 당해번역이 겨냥한 특수독자층에 따라서 번역비평의 기준이 번역비평의 기능적 범주에서 추론되었다면 그 번역비평은 실제에 적합하다.

3) 텍스트에 적합한 그리고 목적에 알맞는 두 번역방법은 번역가의 주관적-체질적 영향, 즉 해석학적 과정의 주관적 조건과 번역가의 인격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비평가는 두 가지 영향 모두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 범주가 상위개념의 요인으로서 번역비평을 규정한다.

4) 따라서 모든 사실에 적합한(텍스트에 적합한 또는 목적에 알맞는) 번역비평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조건이 의식적으로 고려할 때 번역비평은 그 정도로 객관적이다.

또 한편 Reiss(1971, 7f)는 번역비평 연구에 관해서도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1) 번역비평은 번역수행 능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55) 여기에서 번역비평은 원문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2) 번역비평은 번역비평가의 언어의식을 강화하고 그의 언어적 및 언어외적 영역을 확충하는 데 기여한다.

3) 기존의 번역비평은 여러 면에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객관적 번역비평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번역비평은 그 목적에 따라서 또한 구별된다. Wilss(1974, 41)에 의하면 응용과학으로서 번역비평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간언어적 동시진행의 시도로서 번역과정에서 사고의 과정과 형식화과정을 의식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해심리학적으로verstehenspsychologisch 설정된 번역기술Übersetzungstechnik의 관점에서 번역가를 위한 구체적 작업규범을 추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번역비평의 과제는 한편으로는 특정의 번역결정을 위한 조건을 반영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반영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번역기술적übersetzungstechisch 방법의 기술Beschreibung로 전환시키는 데 있다.

구조적 번역비평이 오류가능성과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또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확정된 구조적 번역비평을 위한 중요한 사전작업은 대비문법, 오류분석과 간섭(혼효)언어학Interferenzlinguistik 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우선적으로 랑그와 관련되며 또한 외국어습득을 목표로 한다. 구조적 번역비평과 언어교육적 번역비평은 대학연구소의 번역사와 통역사 디플롬청구논문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가르치고 있는 번역비평의 유형과는 구별된다. 여기에서 번역비평가는 번역결정을 선택된 텍스트의 부분에 의거해서 비판적으로 수행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평가(=미래의 번역가)는 전제조건, 문제점과 번역과정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번역비평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이미 언급한 Wilss의 주장과 일치한다(Koller 1979, 210).

위에서 논의한 번역비평 방법은 이론보다는 실제응용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적 번역비평 방법은 우선적으로 특수한 번역수업에 적합하거나 오류분석적-구성적 목적을 탈피해야 한다. 학문적 비평은 응용과는 무관해야 하지만 실제로 특수목적을 위한 번역비평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특히 번역비평에서 "비평"은 이와 관련해서 번역을 훌륭한/졸렬한 또는 그름/옳음의 범주로 판단하는 제한된 의미로 파악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오류분석모델로서의 번역비평은 번역비평의 과제와 가능성을 필요이상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Klegraf(1974)도 이러한 견해를 표명했다. 비평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며(S. 60) 특히 두 종류의 오류 즉 원어텍스트의 해독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역어텍스트의 기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명해야 한다(S. 65ff). 총체로서 번역의 평가는 번역비평의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평가는 번역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이러한 번역비교는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에 앞서서 행해진다. Koller(1979, 211-16)에 의하면 과학적 번역비평wissenschaftliche Übersetzungskritik은 1)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 2) 번역

비교, 3) 번역평가의 세 부분으로 성립되는데 다음에 각 영역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자질은 번역비평과 관련되는 언어기능, 내용상의 특성, 언어적-문체론적 특성, 형식적-미학적 특성, 화용론적 특성 등 5개 분야에 관한 질문목록을 통해서 확정된다:

(1) 언어기능: 텍스트는 언어적-문체론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느냐에 따라 묘사, 표현, 호소를 중시하는 텍스트로 구별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체적 텍스트에는 세 기능이 모두 나타나지만 그중 한두 가지 기능이 우세하다. 그러나 묘사의 기능과 학문용어를 그리고 표현기능과 서정시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광고는 가능한 구매자에게 호소하지만 그 때문에 광고언어 그 자체가 호소적일 필요는 없다. 언어의 표현기능과 상품에 관한 정보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광고도 허다하다. 언어기능적 단초의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적-문체론적 특성을 어느 특정의 언어기능과 텍스트유형에 귀속시키는 데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어적 표현가능성은 - 사용빈도와 텍스트내적 기능이 비록 다르지만 - 매우 상이한 텍스트유형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은유적 표현은 문학작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술언어나 광고언어에도 사용된다. Koller 역시 Reiss와 유사하게 언어기능에 따라 텍스트유형을 ① 언어의 묘사기능(외연적 기능)이 우세한 텍스트, ② 상이하지만 언어의 묘사기능과 표현기능(외연적 기능과 내표적 기능)이 함께 하는 텍스트유형, ③ 호소기능에 중점을 두는 텍스트유형으로 구별했다. 물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① 유형에는 학문적-기술적 텍스트, ② 유형에는 문학적 텍스트 그리고 ③ 유형에는 광고텍스트가 속한다.

(2) 언어내용상의 특징: 내용상의 특징에 따라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원어문맥에 고유한 특정의 문학적, 역사적, 경제적 특성 등을 표현하지 않고 특정의 전공 및 전문분야의 테두리 안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태관계를 취급하는 텍스트(학문적-기술적 텍스트),

② 원어문맥 특유의 분위기에 젖어 있거나 원어민의 고유한 생활관습의 지식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원어특유의 사태관계를 전제로 하는 텍스트(향토문학적 텍스트),

③ 문맥상으로 원어와 특별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맥을 중개하는 텍스트(여행보고서, 지역학적 묘사 등의 텍스트),

④ 암시적으로 원어특유의 특정문맥과 연관되어 있는 텍스트이며 이러한 문맥은 텍스트 연관관계를 토대로 다소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다(대부분의 문학작품텍스트).

(3) 언어적-문체론적 특징: 다음의 현상과 요인이 텍스트분석에 고려되어야 한다.

① 어휘와 관용어

② 통사론

③ 사용규범

④ 원어텍스트의 개인문체론적 자질

이러한 텍스트분석을 토대로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전형적으로 원어와 관련된 언어적-문체론적 수단을 사용하는 텍스트(뚜렷하게 내포적으로 표시되거나 언어주제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문학적 텍스트), ② 언어적-문체론적으로 중립적 텍스트(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③ ①과 ② 사이에 단계적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텍스트(대부분의 문학작품텍스트)

(4) 형식적-미학적 특징

형식적 등가관계를 토대로 다음의 두 텍스트유형이 구분된다:

① 특정의 형식적-미학적 수단(압운, 리듬 등)을 사용하거나 형식적 조형화의지를 식별하게 하는 텍스트(대부분의 서정적 또는 극적 감흥의 텍스트)

② ①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대부분의 산문텍스트)

(5) 화용론적 특징[56]

Neubert(1968)는 텍스트유형을 토대로 텍스트와 수신인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①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는데 이러한 목적은 공동의 또는 잠재적으로 공동의 필요성에 근거한다(학문적-기술적 텍스트). 화용론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텍스트는 같은 방법으로 역어의 화자와 독자의 호기심을 끈다(S. 30).

② 원어텍스트는 원어화자의 특별한 요구에 상응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원어의 특성을 지닌 텍스트(원어문맥과 관련되는 법률적 텍스트)이다. 물론 이러한 텍스트는 역어의 화자를 고려하지 않는다(S. 30f).

③ 변증법적 방법으로 원어중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원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텍스트이다(문학작품텍스트의 일부분). 이러한 텍스트의 생성은 사회적으로 조건지워지지만 또 한편으로 텍스트 그 자체는 이러한 조건을 초월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인간적 욕구를 표현한다(S. 31).

④ 원어로 초안되었지만 그 텍스트는 오직 번역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성되었다(외국인을 위한 광고텍스트, 여행안내서). 이러한 텍스트는 처음부터 번역을 목적으

---

56) 여기에서 논의될 일차적 텍스트화용론과 구별되는 이차적 텍스트화용론이 있다. 이차적 텍스트화용론은 원어텍스트를 특정독자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개작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들면 원문텍스트가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은 작품인데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적합하게 개작해서 번역하거나 성서를 특정의 문화와 종교적 조건에 맞게 번역하는 경우다.

로 하는 원어텍스트이다(S. 31).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텍스트 또는 개별적 텍스트의 일부분에 유효한 등가설정 및 등가설정의 서열관계에 관한 충족성은 물론 일부 총족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 한편 이러한 등가관계 충족성을 토대로 다음에 논의할 번역비교와 번역평가가 가능해진다.

2) 번역비교

번역텍스트와 원문텍스트의 비교는 실용적 면과 이론적 면으로 양분되며 전자의 경우에서는 원문과 역문상호간(또는 텍스트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분)의 번역단위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번역단위는 그 크기에 따라 한 단어에서 텍스트의 일부분 또는 전체텍스트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비교는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에서 추출된 언어기능적, 내용적, 언어적-문체론적, 형식적-미학적 그리고 화용론적 자질이 역어에서 어떤 위치가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후자의 경우에서는 등가관계 설정 충족성에 관한 서열관계의 재구성과 번역가가 번역시에 어떤 원리에 따라 등가관계를 설정하였는지 그 과정이 문제시된다. 등가관계 설정의 재구성에 있어서 번역가의 번역의 원칙, 방법과 과정 등에 관해서는 역어텍스트의 서문과 후기에 기재되어 있다.[57]

번역비평가는 개별적 번역가의 결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비평가 자신에게 부적당하다고 간주되는 특정의 언어적-문체론적 결정이 이러한 사전결정의 논리적 귀결로서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평가는 이러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번역가의 이론적 영역에서부터 고찰하기 시작해야 한다. 번역비교의 이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분석의 결과에서 얻은 등가관계 설정을 비교하고 당해번역에서 유효한 등가관계 설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3) 번역평가

번역평가는 번역비교의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번역결정의 충족성에 관한 진술이 시도되어야 한다. 충족성의 개념은 언제나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자질과 등가관계 설정과 관련된다. 동시에 번역비평가는 충족성의 기준에 관해서 그 자신이 그러한 사전결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해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번역비평가는 그의 평가의 토대가 되는 번역규범을 해명해야 한다. 번역비평은 항상 규범적 관련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 번역환경이나 번역이 변경되는 것과 같이 또한 규범적 관련체계도 변화한다.

---

57) 번역가가 번역의 원칙과 방법에 관한 자신의 임무와 등가설정의 결정원칙을 사전에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우선적으로 번역평가에서 논의된다. 예컨대 번역가가 자유스러운/충실한/축어적/동일한 영향효과가 있는 등의 번역방법을 미리 알고 있다는 사실은 번역가의 번역능력과 무관하지 않다.

위에서 논의된 Koller가 제시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번역비평의 원칙이나 방법 역시 이론적이나 실제 응용면에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번역의 객관적이고 확고한 이론이나 방법도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번역비평의 객관적 이론이나 방법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필자는 앞으로 구체적 번역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 번역비평의 이론과 방법이 정립될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Austin, J. 1962. *How to Do Thing with Words.* London

Bausch, K. 1968. Die Transposition. Versuch einer neuer Klassifikation, in *Linguistica Antverpiensia* II

_____. 1973. Kontrastive Linguistik, in W. Koch(Hg). *Perspektiven der Linguistik* I.

Benjamin, W., 1923. Die Aufgabe des Übersetzers, in Störig(Hg). 1963

Bühler, K., 1965. *Sprachtheorie.* Stuttgart

Catford, J. 1965. *A Linguistic Theory of Translation. An Essay in Applied Linguistics.* London

Comsky, N. 1957.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_____.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Christmann, H. 1966. Beifräge zur Geschichte der These vom Weltbild der Sprache, in *Abhandlungen der geistigen und sozialwissenschaftlichen Klasse. no. 7.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der Literatur in Mainz.* Wiesbaden

Coseriu, E. 1970. Über Leistung und Grenzen der kontrastiven Grammatik, in H. Moser(Hg). *Probleme der kontrastiven Grammatik.* Düsseldorf

Dane, F. 1970. Zur linguistischen Analyse der Textstruktur, in *Folia Linguistica* 4

Diller, H./Kornelius, J. 1978. Linguistische Proleme der Übersetzung, Tübingen

Dürbeck, H. 1975. Neuere Untersuchungen zur Sapir-Whorf-Hypothese, in *Linguistics* 145

Fränzel, W. 1914. *Geschichte des Übersetzens im 18. Jahrhundert.* Leipzig

Friederich, W. 1985. *Technik des Übersetzens. Englisch und Deutsch.* München

Gentzler, E. 1994. *Contemporary Translation Theories.* London and New York

Gerzymisch-Arbogast, H. 1994. *Übersetzungswissenschaftliches Propädeutikum.* Tübingen

Gülich, E./Raible, W. 1977. *Linguistische Textmodelle. Grundlagen und Möglichkeiten.* München

Harweg, R. 1968. *Pronomina und Textkonstitution.* München

Hönig, H./Kussmal. P. 1982. *Strategie der Übersetzung. Ein Lehr- und Arbeitsbuch.* Tübingen

Humboldt, W. 1910. *Über das vergleichende Sprachenstudium in Beziehung auf die verschiedenen Epochen der Sprachenentwicklung.* Leipzig

_____. 1949. *Über das Verschiedenheit des Sprachbaues und ihren Einfluss auf die geistige Entwicklung des Menschengeschlechts.* Mit einem Nachwort von H. Nette(Hg). Darmstadt

Huyssen, A. 1969. *Die Frühromantische Konzeption von Übersetzung und Aneignung. Studien zur frühromantische Utopie einer deutschen Weltliteratur.* Zürich

Ivir, V. 1981. The Communicative Model of Translation in Relation to Contrastive Analysis, in W. Kühlwein/G. Thome/W. Wilss(Hg). 1981. *Kontra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swissenschaft. Akten des internationalen Kolloquiunms.* Trier/Saarbrücken

Jäger, G. 1975. *Translation und Translationslinguistik.* Halle

Jakobson, R. 1966.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R. Brower(ed.). 1959. *On Translation.* New York

Kade, O. 1968. Die Auswirkung von Fehlleistungen im Original auf die Translation, in Neubert. 1968

Kelly, L. 1979. *The True Interpreter. A History of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in the West.* Oxford

Klegraf, J. 1974. Einige Bemerkungen zu Übersetzungskritischen Fragen, in W. Wilss/G. Thome(Hg). 1974. *Aspekte der theorietischen, sprachenpa-arbezogeen und angewandte Sprach-Übersetzungswissenschaft,* vol. I : Saarbrücken/Heidelberg; vol. II :Heidelberg

Kloepfer, R. 1967. *Die Theorie der literasischen Übersetzung. Romanisch-deutscher Sprachbereich.* München

Koller, W. 1979(수정판 1992).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

Koschmieder, E. 1965. *Beiträge zur allgemeinen Syntax.* Heidelberg

Kühlwein, W. ^{2}1980. Angewandte Linguistik, in H. Althaus/H. Henne/H. Wiegand(Hg). ^{2}1980. *Lexikon der Germanischen Linguislik.* Tübingen

Lenneberg, E. 1972. *Biologische Grundlagen der Sprache.* Frankfurt a. M(amerik. Aufgabe 1967)

Malblanc, A. 1961. *Stylistique comparée du français et de l'allemand. Essai de représentation linguistique comparée et Etude de traduction.* Paris

Mounin, G. 1963. *Les problèmes theóriques de la traduction.* Gallimard (=Bibliothèque de idées)

_____. 1967. *Die Übersetzung, Geschichte, Theorie, Anwendung.* München

Muderbach, K. 1991. Erschliessung historischer Texte mit Hilfe linguistischer

Methoden, in H. Best/H. Thome(Hg). 1991. *Neue Methoden der Analyse historischer Daten.* Reihe historisch-sozialwissenschaftliche Forschungen des Zentrums für historische Sozialforschung. St. Katharien: Scripta Mercaturae

Nida, E.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With Special Reference to Principles and Procedures Involved in Bible Translating.* Leiden

_____. 1969. Science of Translation, in *Language* 47

_____. 1974. Translation, in Th. Sebeok(ed.),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12

_____. 1976. A Framework for the A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ories of Translation, in R. Brislin(ed.). *Translation. Applications and Research.* New York

Neubert, A. 1968. Pragmatische Aspekte der Übersetzung, in *Grundfragen der Übersetzungswissenschaft. Beihefte zur Zeitschrift Fremdsprachen II.* Leipzig

Popoviç, A. 1973. Zum Status der Übersetzungskritik, in *Babel*

Reichert, K. 1967. Zur Technik des Übersetzens amerikanischer Gediechte, in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 21

Reiss, K. 1971(^{2}1982). *Moglichkeiten und Grenzen der Übersetzungskritik. Kategorien und Kriterien für eine sachgerechte Beurteilung von Übersetzungen.* München

_____. 1976. Das Textsortenproblem aus angewandt-linguistischer Sicht, in H. Drescher/S. Sceffzek(Hg). *Theorie und Praxis des Übersetzens und Dolmetschens.* Bern

Reiss, K./Vermeer, H. 1984.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Schadewaldt, W. 1963. Das Problem des Übersetzens, in Störig(Hg). 1963

Schleichermacher, F. 1813. Über die verschiedenen Methoden des Übersetzens, in H. Störig(Hg). 1963

Searle, J. 1969. J. 1969.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Snell-Hornby, M.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r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Söll, L. 1971. Traduisibilité et intraduisibilité, in *Meta* 16

Steiner, G. 1975. *After Babel. Aspects of Language und Translation.* London/ Oxford/New York